

#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

이도영<sup>1</sup>, 조진희<sup>2\*</sup>

<sup>1</sup>창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sup>2</sup>동남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Convergence Influence of Self-Resilience, Critical Thinking,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Lee Do-Young<sup>1</sup>, Cho Jin-Hui<sup>2\*</sup>

<sup>1</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nam Health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셀프리더십의 관계를 파악하고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 수집을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이전 학기 성적이었고, 그 다음으로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의 필요성, 나이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변인들은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총 28.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반적인 특성이 고려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이 개발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학업적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pprehend the relationship among self-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 and confirm the influential factors to self-leadership.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investigation research that conducted data collection through structural survey targeting sophomores from nursing college. As the result, the most influential factor to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 was GPA (Grade point average) from last semester followed by critical thinking, necessity of self-leadership program and age, and these variables explained 28.4% of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recognize the necessity of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and expect to develop self-leadership program considering general characteristic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Self-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cademic Self-Efficacy, Self-Leadership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기관의 대형화 추세는 간호 직무의 전문화와 세분화로 그 역할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1], 고도로 발

달된 의학기술은 대상자의 기대수준과 간호 요구 수준을 높이고 있다[2].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간호사는 다양한 의료 상황에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인 문제해결능력과 책임 있는 전문인으로써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3],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가지고

\*Corresponding Author : Cho Jin-Hu (jhcho@dongnam.ac.kr)

Received August 21, 2018

Accepted October 20, 2018

Revised October 1, 2018

Published October 28, 2018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지녀야 한다[1]. 이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의료현장에서 요구되는 간호사의 핵심역량을 겸비하여 졸업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간호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간호교육의 질 향상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간호교육인증평가 시 교육성과의 측정개념으로 하고 있다[4].

셀프리더십은 책임 있는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가 겸비해야 할 기본적인 자질로서 스스로 주도하는 자율적인 리더십으로 오늘날 간호교육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다[2]. 셀프리더십은 자신의 생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확립하고 맡은 임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것과 관리하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영향력을 발휘하며 리드하는 것이다[5]. 간호사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과 직무만족도가 높았으며[6], 개인과 팀의 직무역할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7],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간호업무 성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았으며[3,9-12],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9,11,12],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13].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임상실무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그 역량을 키워가기 위해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여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확고하게 인식하여 스스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셀프리더십을 갖추어야 하며[10], 이러한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여 간호대학생에게 셀프리더십을 함양하고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강도가 높은 실습교육과 이론교과목을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정서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11]. 변화 및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게 반응하는 자아탄력성은 간호대학생활의 학업적응을 높일 수 있으며[14], 진로결정과 관련된 자신감과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확신감이나 올바른 진로를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았다[9]. 특히 간호대학생의 간호교육은 이론과 임상실습이 필수적인 요소로 이론을 근거하여 대상자를 사정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근거를 찾는 지적 과정으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며, 이러한 비판적 사고는 간호전문직이 임상적 판

단과 결정을 수행할 때 필수적이다[11]. 따라서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의 간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과정이며, 간호교육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법과 창의적인 학습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2]. 한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이 임상의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도전하여 분별력 있게 정보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인다면 적극적으로 학습을 유도하고 유능한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13].

간호전문직은 자신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가운데 업무성과를 높이고 조직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상상력을 강조하는 셀프리더십이 요구되며[1], 셀프리더십은 간호대학생활의 적응에서도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나 이에 관한 영향을 검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10]. 특히 의료현장에서 셀프리더십을 높이기 위해 요구되는 핵심적인 역량으로 판단되는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에서 교육과정에서 의료현장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높이고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리더십 함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도전하고 사고하는 셀프리더십을 높여 간호리더로 나아가기 위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셀프리더십의 관계를 파악하고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셀프리더십의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셀프리더십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셀프리더십의 정도를 파악하고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개 대학의 간호학과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변수는 학년에 따라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공과목과 교내실습이 시작되는 시점인 2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 참여에 동의한 200명 학생 중 응답이 미비한 자료를 제외한 총 184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자 표본크기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G\*Power 3.1.4 프로그램[15]을 이용하였으며, 회귀분석에서 중간 정도의 효과인 .15, 유의수준은 5%, 검정력 95%, 예측변수의 수(Number of predictors) 10일 때 필요한 최소 표본의 수는 153명으로 산출되어 본 연구는 분석 조건을 만족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셀프리더십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Houghton과 Neck[5]가 개발한 RSLQ(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를 Shin 외[16]이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셀프리더십은 총 35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행동 중심적 전략(18문항), 자연적 보상 전략(5문항), 건설적 사고전략(12문항)으로 3상위항목과 9개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하고 항목별로 Cronbach's  $\alpha$ 는 .74에서 .8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alpha$  값은 .93로 나타났다.

#### 2.3.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Connor와 Davidson[17]이 개발한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을 Baek[18]이 변안한 한국형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 도

구는 총 25문항으로 강인함, 인내력, 낙관성, 지지, 영성의 5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서, 점수의 범위는 최소 25점에서 최대 125점으로 산출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는 .89점이었으며(참고문헌) Baek[1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값은 .93점이었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86이었다.

#### 2.3.3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Yoon[19]이 개발한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7문항으로 건전한 회의성(4문항), 지적 공정성(4문항), 객관성(3문항), 체계성(3문항), 신중성(4문항), 지적열정/호기심(5문항), 자신감(4문항)의 7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정말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정말 그렇다' 5점까지로 배점하고 부정문항은 역환산하여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Yoon[1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5로 나타났다.

#### 2.3.4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Kim 과 Park[20]이 개발한 도구를 Ha[21]가 보완 및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하부요인으로는 과제 난이도 7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10문항, 자신감 6문항의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되어 있다. 김아영과 박인영(2001)의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은 .84이었고, Ha[2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값은 .83 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3로 나타났다.

## 2.4 자료수집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2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8년 4월부터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먼저 해당 간호대학의 교수에게 양해를 구한 후 대

상자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연구 참여 시 개인 정보 보호, 설문지에 응답에 대한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 후 동의를 한 대상자에게 진행하였다. 자료는 본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참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대상자는 익명이 보장되며 설문 자료는 코드화하여 코딩하였다. 또한 언제든지 본 연구에 참여를 원하지 않으며 연구 진행 중이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분간이었다.

##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SPSS 20.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 처리하였다.

- 1)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한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한 후,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 3)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셀프리더십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였다.

Table 1.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8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elf-leadership		
			M±SD	t or F	p
Age(yr)	20~25 <sup>a</sup>	159(86.4)	3.42±0.52	3.47	.033 † (b>c)
	26~30 <sup>b</sup>	15(8.2)	3.65±0.50		
	30 < <sup>c</sup>	10(5.4)	3.09±0.58		
	M±SD		24.01±5.45		
Gender	Male	18(9.8)	3.57±0.48	1.30	.195
	Female	166(90.2)	3.40±0.53		
Previous semester grade	3.0 > <sup>a</sup>	29(15.8)	3.15±0.62	9.17	<.001 † (a<b<c<d)
	3.0 ≤ ~3.5 > <sup>b</sup>	69(37.5)	3.34±0.43		
	3.5 ≤ ~4.0 > <sup>c</sup>	70(38.0)	3.51±0.50		
	4.0 ≤ <sup>d</sup>	16(8.7)	3.90±0.49		
College Life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sup>a</sup>	27(14.7)	3.27±0.58	8.67	<.001 † (a<c, b<c)
	Moderate <sup>b</sup>	100(54.3)	3.33±0.50		
	Satisfaction <sup>c</sup>	57(31.0)	3.65±0.49		
Satisfaction of major	Dissatisfaction <sup>a</sup>	14(7.6)	3.41±0.40	2.26	.108 † (a<c)
	Moderate <sup>b</sup>	87(47.3)	3.34±0.48		
	Satisfaction <sup>c</sup>	83(45.1)	3.51±0.59		
Interest in college life	Dissatisfaction <sup>a</sup>	26(14.1)	3.14±0.58	7.33	.001 † (a<b, a<c)
	Moderate <sup>b</sup>	95(51.7)	3.39±0.45		
	Satisfaction <sup>c</sup>	63(34.2)	3.59±0.56		
Attitude toward college life	Passive	37(20.1)	3.21±0.52	4.55	.012
	Moderate	114(62.0)	3.45±0.54		
	Active	33(17.9)	3.42±0.53		
Nursing and choice motivation	Grade in high school	18(9.8)	3.46±0.43	1.35	.245
	Fitness	41(22.3)	3.50±0.66		
	High employment	91(49.5)	3.45±0.48		
	Recommend	24(13.0)	3.40±0.50		
Experience in self-leadership education	Many opportunities to go abroad.	2(1.1)	3.84±0.34	-1.44	.152
	To have volunteer work	8(4.3)	3.72±0.46		
	No	166(90.2)	3.42±0.54		
The Need for a Self-Leadership Program	Yes	18(9.8)	3.59±0.41	2.45	.015
	Yes	99(53.8)	3.51±0.54		
	No	85(46.2)	3.32±0.50		
Preferred learning method	Lecture	80(43.5)	3.36±0.58	1.03	.400
	Discussion	22(12.0)	3.44±0.44		
	Case-based learning	54(29.3)	3.50±0.53		
	Problem-based learning	18(9.8)	3.36±0.34		
	Presentation	5(2.7)	3.79±0.63		
	Etc	5(2.7)	3.28±0.33		

† Scheffé test

4)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평균연령은 24.0세로 20~25세의 대상자는 159명(86.4%)로 가장 많았고, 26~30세는 15명(8.2%), 30세 이상은 10명(5.4%)이었다. 성별은 여성이 166명(80.2%)로 과반수 이상이었다. 이전학기 성적은 3.5이상~4.0미만이 70명(38.0%)으로 많았으며, 3.0이상~3.5미만은 69명(37.5%), 3.0미만은 29명(15.8%), 4.0이상은 16명(8.7%)이었다. 대학생활만족도는 만족도가 보통이다가 100명(54.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학전공만족도는 만족도가 보통이다가 87명(47.3%)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생활흥미정도는 흥미정도가 보통이다가 95명(51.6%)로 가장 많았고, 대학생활에 대한 태도에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114명(62.0%)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과를 선택한 동기로는 취업이 잘되어서 49.5%(91명), 적성과 맞아서 22.3%(41명), 주위의 권유에 의해서 13.0%(24명), 고교 성적을 고려하여 9.8%(18명), 봉사직을 갖기 위해서 4.3%(8명), 해외로 갈 기회가 많아서 1.1%(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90.2%(166명)이었으며,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3.58%(99명)이었다. 대상자들이 선호하는 학습법으로는 강의법 43.5%(80명), 사례기반학습 29.3%(54명), 토의 및 토론 12.0%(22명), 문제중심학습 9.8%(18명), 발표 2.7%(5명)와 기타 2.7%(5명)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셀프리더십은 일반적 특성 중 나이(F=3.47,  $p=.033$ ), 이전학기 성적(F=9.17,  $p<.001$ ), 대학생활 만족도(F=8.67,  $p<.001$ ), 대학생활 흥미정도(F=7.33,  $p<.001$ ), 대학생활에 대한 태도(F=4.55,  $p=.012$ ),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의 필요성( $t=2.45$ ,  $p=.015$ )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able 1

#### 3.3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자아탄력성의 점수는  $3.41\pm 0.42$ 점, 비판적 사고성향  $3.54\pm 0.37$ 점, 셀프리더십  $3.42\pm 0.53$ 점, 학업적 자기효능감  $3.10\pm 0.43$ 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184)

Variables	M±SD	Min	Max	Range
Self-resilience	3.41±0.42	2.08	4.52	1~5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54±0.37	2.22	4.74	1~5
Self-leadership	3.42±0.53	1.97	4.77	1~5
Academic self-efficacy	3.10±0.43	1.96	4.13	1~5

#### 3.4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자아탄력성과 비판적 사고성향( $r=.58$ ,  $p<.001$ ), 자아탄력성과 셀프리더십( $r=.44$ ,  $p<.001$ ), 자아탄력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r=.61$ ,  $p<.001$ ), 비판적 사고성향과 셀프리더십( $r=.39$ ,  $p<.001$ ), 비판적 사고성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r=.44$ ,  $p<.001$ ),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r=.30$ ,  $p<.001$ )으로 모두 순상관관계로 나타났다. Table 3

Table 3. Correlations Matrix among Measured Variables (N=184)

Variables	SR	CTD	SL	ASE
	r( $\rho$ )	r( $\rho$ )	r( $\rho$ )	r( $\rho$ )
SR	1	.58 ( $<.001$ )	.44 ( $<.001$ )	.61 ( $<.001$ )
CTD		1	.39 ( $<.001$ )	.44 ( $<.001$ )
SL			1	.30 ( $<.001$ )
ASE				1

SR = Self-resilience; CTD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SL = Self-leadership ; ASE = Academic self-efficacy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184)

Variables	B	SE	$\beta$	t	p
(Constant)	1.10	.35		3.18	.002
Age(yr)	-.13	.07	-.13	-1.99	.047
Previous semester grade	.20	.04	.32	4.85	<.001
College Life Satisfaction	-.00	.07	-.00	-.01	.989
Interest in college life	.05	.07	.07	.72	.473
Attitude toward college life	-.03	.07	-.03	-.40	.693
The Need for a Self-Leadership Program†	-.14	.07	-.14	-2.12	.035
Self-resilience	.22	.12	.17	1.84	.067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4	.11	.25	3.25	.001
Academic self-efficacy	.02	.11	.01	.15	.882
	Adj. R <sup>2</sup> =.284	F=9.06	p<.001		

† Dummy variable

### 3.5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요인은 Table 4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나이, 이전학기 성적, 대학생활 만족도, 대학생활 흥미 정도, 대학생활에 대한 태도,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상관분석에서 셀프리더십과 상관성이 있다고 나타난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 성향,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셀프리더십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명목변수인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가변수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산출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의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 $F=9.06$ ,  $p<.001$ ), 잔차의 등분산성, 정규분포성,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는 .440~.991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09~2.275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잔차분석 결과 Durbin Watson 통계량은 2.14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잔차와 등분산성 및 정규분포성을 만족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이전학기 성적( $\beta=.32$ ,  $p<.001$ )이었고, 그 다음으로 비판적 사고 성향( $\beta=.25$ ,  $p<.001$ ),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의 필요성( $\beta=-.14$ ,  $p=.035$ ), 나이( $\beta=-.13$ ,  $p=.047$ )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변인들은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총 28.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셀프리더십의 정도를 살펴보고,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셀프리더

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는 나이, 이전학기 성적, 대학생활 만족도, 대학생활 흥미 정도, 대학생활에 대한 태도,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의 필요성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나이가 어릴수록, 이전학기의 성적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을 만족할수록, 대학생활의 흥미정도가 만족할수록, 대학생활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느낄수록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이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을 연구한 Kang과 Kim[3]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게 나타났다. Kang과 Kim[3]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자신을 스스로 리더하고 자신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다양한 전략을 더 능숙하고 자율적으로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간호대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이 대상자들의 셀프리더십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년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증가는 학습이나 교육을 통하여 향상 및 발전될 수 있는 것을 시사한다고 언급하였다. 반면 Park[2]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셀프리더십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를 고학년이 될수록 전공이론 및 임상실습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자기 관리가 소홀해진 것으로 파악하여 셀프리더십이 단순히 학년의 진급을 통해 향상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대학생활 속에서 셀프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요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다양한 활동 및 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학년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과약할 수 없었으나, 대상자들이 속한 2학년 안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 간호대학에 동년배보다 연령이 많은 학생들이 입학이 많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추후 연구를 통하여 같은 학년 안에서 나이가 많은 상태인 간호대학생이 셀프리더십이 낮은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개별적이고 단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에서 이전학기 성적이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셀프리더십 점수는 학점이 3.0미만인 군은 3.14점, 3.0이상에서 3.5미만인 군은 3.34점, 3.5이상 4.0미만인 군은 3.51점, 4.0 이상인 군에서는 3.9점으로 성적이 증가함에 따라 셀프리더십의 점수도 증가하여 사후검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스스로 자신을 주도하여 목표를 향한 책임 있는 판단과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자율성과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성적 관리 또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Kim과 Hwang[9]의 연구에 따르면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과 관련되어 수행되어야 할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과 진로를 결정한 후 확고하게 그것을 잘 실행할 수 있는 변인 중 중요한 요소로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한 예이다.

그밖에 Park과 Han[22]의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은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그 결과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에 대인관계나 전공만족도가 높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셀프리더십의 중요한 요인임을 언급하였으며, 간호대학생을 위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긍정적인 사고력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Kang과 Kim[3]의 연구에서는 종교가 있는 경우, 간호학과 지원 동기가 자발적인 경우,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본인 스스로가 간호학과에 지원하지 않고 타인의 권유 때문에 지원한 경우에는 졸업 후 전공과 일치된 직업을 선택하기 어렵고 적응 또한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힘들 것이며, 전공에 대한 만족도 또한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3].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자아발전과 자기개발을 향상시키면서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셀프리더십 향상프로그

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순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셀프리더십은 전공만족도[1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9], 간호전문직관[2], 임상수행능력[12]과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셀프리더십은 간호대학생이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의 갖추어야 할 기본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2]. 따라서 이들 변수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교과과정 및 프로그램을 위한 노력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이전학기 성적이었다고, 그 다음으로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의 필요성, 나이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변인들은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총 28.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교육은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를 증진시키고, 복잡한 의료환경의 대처능력 향상과 동시에 양질의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에 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13].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전에 학습자인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적과 나이와 같은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셀프리더십 교육의 단계 및 수준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와 유사하게 Kang과 Kim[3]의 연구에서도 비판적 사고성향은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이었으며,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의 증진은 스스로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 셀프리더십이 함께 향상될 것으로 언급하였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 안에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리더십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의 강화는 양질의 간호 수행을 위한 핵심요소이다 [3]. 이상에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

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셀프리더십의 정도를 파악하고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이진학기 성적과 나이와 같은 요소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셀프리더십 교육 시 단계 및 수준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간호대학생에서 셀프리더십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교육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2개의 간호대학에서 편의 추출에 의한 자료 수집으로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추후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대한 확대 및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위한 셀프리더십에 관한 프로그램개발을 하고 프로그램의 적용과 효과에 대한 검증 연구를 제안한다.

## REFERENCES

- [1] H. J. Won & S. H. Cho. (2013). A Review of Research on Self-leadership in Nurses. *J Korean Acad Nurs Adm*, 19(3), 382-393.  
DOI: 10.11111/jkana.2013.19.3.382
- [2] H. J. Park. (2015).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1(2), 227-236.  
DOI: 10.5977/jkasne.2015.21.2.227
- [3] H. S. Kang & Y. Y. Kim. (2017).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5), 617-625.  
DOI: 10.5762/KAIS.2017.18.5.617
- [4]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2). *Public hearing on the accreditation of nursing: Strategies for the accreditation of nursing in 2012*. Seoul: Korea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 [5] J. D. Houghton & C. P. Neck. (2002). The revised self 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 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7(8), 672 - 691.  
DOI: 10.1108/02683940210450484
- [6] H. N. Moon & M. H. Sung. (2016). Impact of Ego-resilience, Self-leadership and Stress Coping on Job Satisfaction in Emergency Department (ED) Nurs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5(4), 268-276.  
DOI: 10.5807/kjohn.2016.25.4.268
- [7] S. Y. Kim & E. K. Kim & B. S. Kim & E. P. Lee. (2016). Influence of Nurses' Self-leadership on Individual and Team Members' Work Role Performance. *J Korean Acad Nurs*, 46(3), 338-348.  
DOI: 10.4040/jkan.2016.46.3.338
- [8] S. I. Im & J. P. & H. S. Kim. (2012). The Effects of Nurse's Communication and Self-Leadership on Nursing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1(3), 274-282.
- [9] K. H. Kim & E. H. Hwang. (2016). Influence of Ego-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 Leadership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2), 436-445.  
DOI: 10.5762/KAIS.2016.17.2.436
- [10] M. S. Kim. (2017). The Influence of Self-leadership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ollege Adap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3(2), 184-193.  
DOI: 10.5977/jkasne.2017.23.2.184
- [11] E. H. Kim. (2016). A Study on the Ego 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atisfaction in Maj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4(4), 720-729.
- [12] E. S. Do & Y. S. Seo. (2014).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Fundam Nurs*, 21(3), 283-291.  
DOI: 10.7739/jkafn.2014.21.3.283
- [13] Y. H. Kim & Y. A. Kim. (2016).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9), 589-598.
- [14] W. J. Park. (2009).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Learning Styles, and Academic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18(3), 240-250.
- [15] F. Faul, E. Erdfelder, A. Lang & A. Buchner.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al Research Methods*, 39(2), 175-191.
- [16] Y. K. Shin & M. S. Kim & Y. S. Han. (2009).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RSLQ) for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6(3), 313-340.

- [17] Conner, K. M. & Davison J. R. T. (2003).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CD-RISC). *Depression & Anxiety*, 18(2), 76-82.  
DOI: 10.1002/da.10113
- [18] Baek, H. S. (2010).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K-CD-RISC)*. Unpublished master's thesis, Eulji University, Seoul.
- [19] Yoon, J. (2004).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Seoul.
- [20] A. Y. Kim & I. Y. Park. (200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Scale. *The Kore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39(1), 95-123.
- [21] J. H. Ha. (2003).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22] H. S. Park & J. Y. Han. (2015).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n Data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6(3), 695 - 706.  
DOI: 10.7465/jkdi.2015.26.3.695

이 도 영(Lee Do Young)

[중신회원]



- 2010년 8월: 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8년 3월~현재: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만성질환, 스트레스, 간호중재, 응급간호
- E-Mail : sunshinenurse@hanmail.net

조 진 희(Cho Jin Hui)

[중신회원]



- 2008 8월: 한양대학교 임상간호 정보대학원 임상사례관리학 (임상사례관리학석사)
- 2013년 2월: 한양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6년 4월~현재 : 동남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공적 노화, 스트레스
- E-Mail : jhcho@dongnam.ac.kr